

학자금 대출 금리 내리고 규모 늘린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금리 2.2% → 2.0%로 인하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 상향 ... 채무자 부담 낮아져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국가지원장학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 2.25%에서 2.2%로 0.0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또 내려갔다.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이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개선되면서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돼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도 낮아지게 됐다.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원에 달하는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자연배상금을 인하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자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는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

식으로 인하여 적용키로 했다.

생활비대출 횡수 제한도 폐지함에 따라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대출의 횡수 제한도 올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은 4

월 1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대출 신청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대출 실행은 다음 날인 5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기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돼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병원 분자영상신약개발센터 개소



GMP 인증 사이클로트론 광주 최초로 가동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광주지역 최초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인증 받은 사이클로트론실과 분자영상신약개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방사성의약품 제조·생산에 돌입했다.

분자영상신약개발센터는 세포나 유전자 단위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들여다 보

거나 종양세포 등의 성질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사성 추적물질을 이용해 질병의 성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의약품 개발하는 최첨단 의료 시설이다.

이날 함께 개소한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의 사이클로트론실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에 이어 지난 12월 9일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까지 받은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이며,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GMP 인증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 공채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도 중증 장애인 교육 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교육 공무직원 중증 장애인 공개경쟁 채용 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선발 인원은 청소 보조원 9명으로, 응시 원서는 6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휴일 제외) 접수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29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 국민)가 광주로 돼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선대 신입생 예비대학 운영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 신입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신입생과 학부모가 대거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민영돈 총장이 직접 조선대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석사 223명·박사 229명

조선대학교(총장민영돈)가 2020학년도 전기(2차)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학원 신입생은 총 452명으로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의 석사과정(협동과정 포함, 223명)과 박사과정(협동과정 포함, 229명)이다.

석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법령에 근거해 학사학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는 조선대학교 재학 중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6학점(B+이상) 취득(예정)자다.

박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다.

조선대 대학원은 이점 학사 및 석사과정의 출신학교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식품영양학과(임상영양전공) 지원자인 경우 입학 전 영양사면허 취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中후난대와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공동 추진

5개 학과 학생·교수 50여명 후난대 방문 성과 발표·공유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의 5개 학과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최고수준의 이공계 명문대학인 후난(湖南)대학교 학생들과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성과 교류 및 공동과제 추진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 대학 간 통상적인 학생·교수 교류차원을 넘어 학과 및 전공분야 공동과제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호남대학교가 최초이다.

호남대학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

학사업단(단장 정대원)은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후난성 후난대학교를 방문해 2019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과제수행 성과를 공유하고, 2020학년도에 공동으로 추진할 7개의 공동 연구 및 수행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사업단에 소속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 학생과 정대원, 정영기, 김재중, 유희수, 윤근영, 손병래 교수 등 50여명은 6일 후난대학교에서 후난대의 관련학과 박사, 석사과정 학생과 교수 등 50여명과 교류를 통해 지난해 수행한 캡스톤 디자인 연구과제 성과를 상호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회계 교육재정 분석 평가 우수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18년도 회계 지방 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육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은 재정 효율성 분야와 재정 책무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64.0점을 획득했다. 도 단위 교육청 평균 점수 160.51점보다 3.49점 높은 점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대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 교통부 장관 표창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가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광섭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